

꿈담 교실 사업의 의의와 학교 공간의 변화

김윤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사무관

학교시설의 성장 과정

1950년대 학교시설은 급증하는 학생 수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에 학생 수에 대한 적절한 공간 확보만을 위하여 건축되었다. 이후 1960년 초등학교 표준설계도가 규정되었으며, 표준설계도는 학교시설 건축의 양적 성장은 가져 왔지만, 지역 특성이나 대지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수용만을 위해 동일한 설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부족한 교실 증축의 형태로 건물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는 표준설계도가 폐지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복합화 계획과 오픈 스쿨 계획 등 새로운 학교건축 방향이 제시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2000년대는 교육방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시기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또 학교 외부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평생교육환경 구축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시설의 역할을 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학교시설의 규모와 형태는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빠른 변화 속에서 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예로 임대형민자(BTL)사업, 복합화 공간, 친환경 학교건축, 내진보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등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시도들이 적용된 학교건물임에도 기존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안타깝게도 학교 건물과 유사한 평면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로 교도소가 거론된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추진배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학생 수(물론 최근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다)만큼이나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 팽창 시기의 건물 보수주기가 지속적으로 도래하여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즈음하여 시설보수를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교육청의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5 교육과정 개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고민을 하였다. 21세기 인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창의와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에 발맞추고 서울시교육청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한 것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이하 꿈담 교실)' 사업이다.

꿈담 교실 사업의 내용

확일화된 교육공간에 꿈을 담다

꿈담 교실 사업은 확일화된 교육공간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으로 하였다. 이는 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유치원과는 다른 교실환경과 교육활동으로 인해 겪을 학습부담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 어린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정과 성장 맞춤교육(안성맞춤 교육)'과 그 의미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 대상학교 선정 때 저학년 학년 단위 5개 교실 전후의 규모를 권장하였고, 1개 학년이 2개 학급 또는 3개 학급인 경우 2개 학년까지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그동안의 학교평면에서 보인 천편일률적 교실 규격과 복도, 혹은 열린 교실을 위하여 설치된 건식 칸막이 벽체와 활용도가 사라진 넓은 복도를 가진 공간이 개선대상이다.

선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

그 외에도 꿈담 교실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인근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부분 부분 보수할 시기가 도래한 것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든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학교라면 좋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꿈담 교실 대상 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의 안배를 고려하면서도 안성맞춤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우선 고려하였고, 학생 수 감소 등 상대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꿈담 교실을 실시한 학년의 학급 수만 증가한 학교 사례가 몇몇 있는데, 이는 사업이 성공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꿈담 교실 추진 학교 개선사례



서울 동담초등학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학교, 고운 꿈을 꾸다」.



서울 미아초등학교



서울 송정초등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가가 질문하고

어린이의 시선으로 완성한 꿈담 교실

비슷한 얼굴을 하고 건축가를 맞은 교실이 어떻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교실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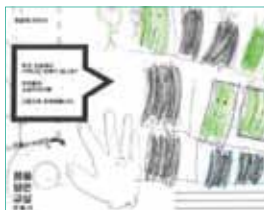
첫째, 교육공간 자문관제도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첫 해 20개의 초등학교 꿈담 교실 사업을 담당하게 될 건축가는 이와 유사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거나 학교 프로젝트를 한 유경험자 그리고 교수그룹 등 다양한 건축가 그룹이었는데, 작은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물론 그동안 학교건축에 대한 무관심 혹은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생소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참여 건축가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간자문관이 추천한 건축가를 신뢰하고,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가 구현되도록 지원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워크숍 실시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하는 것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도입이다. 설계자는 사용자인 건축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학교건축에서 주 사용자인 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꿈담 교실 프로젝트에서는 어린 학생 중에서도 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어린이 시선으로 관찰한 교실공간과 앞으로 교실에 대한 바람이나 상상을 그리며 만드는 작업, 또는 모형을 통하여 직접 공간을 체험하는 워크숍 과정을 거쳐 어린이가 기대하는 교실공간이 구체화되었다. ‘그동안 왜 어린 아이의 생각과 시선을 담아 내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함이 들 정도로 재미있고 아름다운 공간이 생겼다. 건축가는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

꿈담 교실 워크숍 과정 및 완성사례



서울 창신초등학교



서울 이수초등학교



서울 먼뚝초등학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학교, 고운 꿈을 꾸다」.



을 던지고 이야기는 아이들의 입과 손을 통하여 공간으로 변화된 것이다.

꿈담 교실이 만들어 낸 이야기

미래의 아이들은 지식과 관련해서는 컴퓨터와 경쟁하여 이길 수 없다. 아이들에게 암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림에도 삭막한 교실 공간 안에서 정면 칠판을 바라보고 주입식 공부를 하고, 1등을 목표로 공부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옆을 돌아보지 않고 1등을 향해 달리는 아이와 거기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사춘기, 청소년기를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없다. 이 점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 신나게 놀 일도 놀 환경도 적었다.

그런데 꿈담 교실은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공간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 하고자 한다.

꿈담 건축가와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의 내용은 일정한 형식은 없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공간을 말하게 하고, 교실공간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표현하게 한다. 그 표현방법은 그리기가 되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와 글로 써보기도 된다. 아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학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보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교실을 원하기도 하고, 다소 동화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쳐내 보기도 한다. 아이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기획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책으로 엮은 <꿈을 담은 동행>을 보면 그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꿈담 교실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아이,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공간으로

꿈담 교실이 완성된 후의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물론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추적 연구가 있었다면 명료하게 답을 내어 놓겠지만, 추적조사의 형식을 갖춘 연구는 과제로 남기고,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아이들의 행태를 살핀 결과 위주의 주관적 기술로 풀어 보고자 한다.

아이들은 교실 한쪽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교실 뒤편의 작은 마루에서도, 아니면 그냥 교실 바닥에 엎드려서도 책을 읽는다. 1반의 아이들은 2반의 아이들이 금급하다. 그래서 옆 반으로 또는 위층으로 쉬는 시간마다 이동하고 모르고 지낸 친구의 폭을 넓혀 모든 아이들이 놀이친구가 된다. 자유롭게 형성된 책상은 모듈학습에도 활용되고, 비움을 담은 박스는 모이면 단상이 되며, 어떤 아이가 발표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며 친구들은 발표자에 집중한다.

선생님께서는 무언가를 지도하려고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아이들 스스로 신나는 놀이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배워 나간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 최고예요”, “우리 학교 사랑해요!”라고 말한다.

어떤 아이는 복도에서 노는 것이 즐거워 집에 가는 시간도 늦어졌다고 한다. 집에 가면 재미가 없지만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한다. 아이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고, 선생님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행복한 공간이자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작은 꿈이 날개를 달기를

모든 학교를 꿈담 교실로 만들 수는 없지만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학교 공간 변화를 체험한 것은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 학교 공간이 가야 할 길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일이기도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학교 도서관, 학교 공연장, 홈페이지 공간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는 교무·행정공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꿈을 담은 공간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공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 기존에 진행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실이나 특수학급도 꿈을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몇 칸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꿈이 모두에게 행복한 꿈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학교, 고운 꿈을 꾸다」, (주)경성문화사.
- 2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꿈담 동행」.